

# 적자를 두려워 하라? '매출급증' 이커머스 투자GO!

## 티몬

매출액 4972억... 전년비 40% ↑  
프로모션 진행에 실적·손실 늘어

## 위메프

매출4794억, 손실 390억 집계  
중개사업 키워 3년연속 손익개선

## 쿠팡

배송·물류에 2조2500억 투입  
직매입상품 매출비중 9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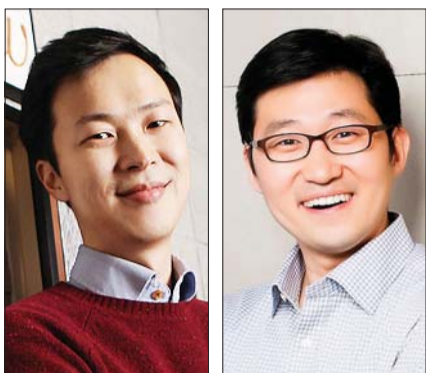


한편 성장폭을 확대한 동시에 영업손실 또한 1254억원으로 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온라인 유통업체 평균 성장률은 15.9%다. 티몬이 평균의 두 배 이상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큐레이션 쇼핑을 토대로 한 '타임마켓'과 신선식품을 포함한 직매입 사업 '슈퍼마트'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티몬은 '티몬데이' '타임어택' '1212타임' '티몬군일가' 등 시간별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영업손실액이 늘어난 이유 역시 타임마켓팅과 직매입 사



박은상 위메프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업대문이다. 식품, 생활용품, PB 상품 등 직매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비용이 소요됐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 투자 및 조직 확대, IT 개발 비용 등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제후 티몬 대표는 "2018년은 독보적인 타임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 하면서 빠른 성장을 달성한 해였다"며 "다이브 플랫폼 구축, 오픈마켓 런칭, 표준 API 완비 등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제적 기술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영업손실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위메프 '선택과 집중' 손익구조 기반

위메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4794억원, 3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 연속 손익개선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340억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안정적인 손익구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위메프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직매입은 줄이는데대신 중개사업은 키워 수익성을 개선했다. 그 일환으로 신선 식품 직매입 서비스 '신선생' 사업을 중단했다.

덕분에 직매입 매출 비중은 2017년 53.7%에서 29.3%로 줄어든 1257억원을 기록했지만, 직매입으로 발생하는 물류 배송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계획된 적자' 쿠팡 2조2500억 투자  
쿠팡 측은 실적발표를 앞두고 '계획된 적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배송과 물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는 당연하다"라며 "훗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코앞의 손익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받은 투자금 2조2500억원을 물류와 배송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타임마켓팅에 힘쓰고 있는 반면, 쿠팡은 유일하게 배송과 물류로 차별화하고 있다. 직매입상품 매출 비중도 90%에 달하는 등 매출 구조도 타 이커머스 기업들과는 다르다.

한편, 올해는 롯데와 신세계까지 이커머스 사업에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세계는 지난 3월 온라인 신선편인 SSG.COM을 공식 출범했으며 올해 거래 목표는 3조 1000억원이다. 롯데 역시 2020년까지 이커머스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계열사의 모든 온라인몰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韓 GDP 2.9% '보호무역 리스크' 노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 결과 영국 10.4% > 노르웨이 6.7% 順

국내총생산(GDP)의 2.9%가 보호무역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에 바탕을 둔 주요 무역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세계 총생산(GDP)의 2.3%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한국 GDP의 2.9%가 무역 보호주의의 영향권에 있으며 영국(10.4%)과 노르웨이(6.7%), 중국(4.3%), 멕시코(4.3%) 경제도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스마트폰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자원과 부품이 혼합돼 사용되는 것처럼

공급망이 국경을 종횡으로 넘나드는 세계 무역의 현실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고 메이바 커즌-톰 올릭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지목한 최대 주요 리스크는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미국·중국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세 가지다.

브렉시트는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영국 국민투표로 현실화했다. EU와 영국이 난항 끝에 10월 말까지로 시한을 6개월 연장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에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GDP의 0.9%가 브렉시트 무역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기아차 노조 "일자리위해 국내생산 요구"

>> 1면 'No만 하는 노조...'서 계속

지난 3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정의조정신청을 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기아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기아차 노조가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형 SUV '텔루라이드'와 신규 인도공장에서 만드는 소형 SUV 'SP2'의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국내 물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국내생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텔루라이드는 기아차가 북미 시장 전용 모델로 출시한 차

량으로 국내서 생산해 수출할 경우 관세 등의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현지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어 지금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쌍용자동차는 9년 연속 무분규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을 따돌리고 15년 만에 국내 완성차 3위 자리를 꿰찼다. 내수와 수출을 포함 14만3309대(반조립제품 포함)를 판매하며 지난해 매출 3조7048억원으로, 창사 이래 연간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김정숙 여사, 재한 카자흐 국민 간담회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월 22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에서 한국-카자흐스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현대무용가 손수정 씨, 고려인 동포, 재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방문하는 카자흐스탄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카자흐스탄 특별전시회를 재한 카자흐스탄 국민 9명과 방문했다고 14일 전했다. /청와대

## 금융사·은행, 상반기 1200명 채용문 활짝

IBK기업·신보·신한·우리 등 8곳 산은·KEB하나銀 등 채용 검토중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대규모 채용문을 연다.

상반기 공채 규모는 최소 1200명 이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중 8곳이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거나 윤곽을 잡았다.

상반기 채용 진행을 확정된 금융공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곳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3곳이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 360명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이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9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1174명)보다 3%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

모가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확정짓지 못한 기업들이 다수 있어서다.

지난해 상반기에 일정 인원을 선발했던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반기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3년간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았던 KEB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인원이 미정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71명을 뽑았던 KB국민은행은 올해도 일정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용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업계에선 금융권의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채용을 독려하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견조한 실적을 냈고, 올해 초에는 명예퇴직까지 진행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적극적으로 채용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공기업은 보수와 재직기간 등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최선호 직장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원이다. 361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

관 포함) 직원의 평균 보수인 6707만원보다 38.8% 많다.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9000만원대에서 직원 평균급여가 형성됐다. 금융지주의 경우 직원 평균급여가 1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인원을 적게 뽑는 금융공기업에선 10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곳도 종종 나온다.

올해도 은행·금융공기업의 채용 전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을 자신들의 모집 요강에 그대로 옮겨 담았고, 금융공기업은 채용 모범규준보다 더 엄격한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학교명과 학업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지원서에서 아예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돼 있다. 채용 과정 상당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 은행들은 채용 모범규준에 따라 대부분 필기시험을 본다.

/채신화 기자 csh9101@